

지리산과 한라산의 역사지리적 배경과 현황 비교 고찰*

최원석 | 경상대학교

- 목 차 -

- I. 머리말
- II. 공간범위
- III. 자연적 배경
- IV. 인문적 배경
- V. 요약 및 맺음말

I. 머리말

지리산과 한라산은 한국을 대표하는 명산으로서, 개성적인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을 지니고 있는 역사지리적인 비교연구 대상이다. 두 산은 연간 탐방객 숫자(2012년)만 하더라도 지리산 2,672,057명, 한라산 1,134,316명에 이를 정도로 수많은 사람이 찾는 산이기도 하다.¹⁾ 이 글은 지리산과 한라산의 명산문화를 이루고 있는 자연적·인문적 배경과 현황을 역사지리적으로 고찰함으로써, 향후 두 산에 대한 본격적인 명산문화 비교 논의의 기초 연구로 삼고자 한다.

* 이 논문은 2007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으며 (NRF-2007-361-AM0015), 2014년 5월 16일 경상대에서 개최된 지리산권문화연구단 학술대회 (“지리산과 한라산, 인문학으로 만나다”)의 발표문 일부를 수정 보완한 것임.

1)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공원기본통계』, 2013.

두 산에 대한 학계의 연구를 분야별로 개관해볼 때 지리산은 한라산보다 인문사회적인 연구가 많고, 한라산은 자연생태적인 연구가 많음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두 산이 지닌 자연환경, 종교문화, 정치사회, 생활사적인 배경 및 특성의 상이함과 무관하지 않다.

지리산은 지속가능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지형조건과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어서 오랫동안 민간인들의 삶의 터전이 되어왔고 수많은 자연마을이 형성·발달되었다. 고대부터 현대까지 정치세력들이 충돌했던 지정학적인 요충지로서 역사의 무대였다. 그리고 수많은 종교시설과 산악신앙소가 집결했던 종교문화의 메카였다.

반면에 한라산은 화산 지형이기에 주민 생활사가 전개되고 可居地 마을이 발달되기에 어려운 환경조건이었다. 지리적으로 먼 바다 밖의 섬에 있어서 현대 이전의 정치사, 사회사, 문화사 면에서는 주변지대나 다름이 없었다. 그렇지만 화산 활동으로 빚어진 기이한 자연경관과 이국적인 아름다움은 내륙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산이었다.

이러한 두 명산의 성격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유형별 기준으로도 잘 드러난다. 한라산은 2007년에 이미 세계자연유산의 반열에 진입하여 인류의 명산이 되었고, 그때를 전후하여 생물권보전지역(2003년)과 지질공원(2010년)으로도 지정된 바 있다. 지리산은 근년부터 세계문화(혹은 복합)유산 등재를 추진하는 중에 있고, 사찰 및 서원, 산악신앙, 빨치산 등의 역사문화전통뿐만 아니라 계단식논, 풍수 등 문화경관 요소에도 주목하여 세계유산적 가치를 밝히고 있다. 이렇게 볼 때 두 명산의 정체성을 한마디로 대비한다면, 지리산은 사람(역사문화)의 명산, 한라산은 자연(지질지형)의 명산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 글은 지리산과 한라산의 명산문화를 이루고 있는 자연적 배경과 인문적 배경, 그리고 지리적 현황을 대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지리산과 한라산의 지리적 현황에 관한 최근의 통계 데이터 및 보고서 자료뿐만 아니라 조선시대의 지리지, 고지도, 유산기 등의 고문헌 자료들도 활용될 것이다.

II. 공간범위

명산, 혹은 명산문화 연구의 역사지리적 접근에서 우선 제기할 점은 어디까지를 산의 공간적 범위로 설정하느냐의 영역 문제이다. 우리나라처럼 고도가 낮은 저산성 산지와 구릉지가 발달하여 산지와 평지의 구분이 불명확한 경우 산지를 정의하기란 더욱 어렵다. 심지어 지형학 분야에서도, 산으로 규정하는 정량적 기준의 해발고도가 200m 이상, 300m 이상, 600m 이상 등으로 다양하게 적용되는 형편이다.²⁾ 예전에 흔히 썼던 ‘非山非野’라는 용어는, 한국의 산지 지형특성을 잘 반영한 역설적이지만 적절한 표현이라고 하겠다.

산(지)의 정의는 해당 지역의 자연지형적 조건, 인식 주체의 관점, 분야별 접근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지역마다 산지환경이 다르고 사람들의 산에 대한 인식도 다르기에 산(지)의 개념과 정의는 당연히 로컬리티(locality)적 속성을 지닌다. 분야로도 자연생태적으로 접근하느냐, 문화역사적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 산지의 공간적 범위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³⁾ 그래서 문화역사적 범주의 산지 영역은 생활경제공간과 역사사회무대라는 공간범위를 지니기에, 자연생태적 정의의 산지보다 해발고도가 낮고 영역범위가 넓어 질 것이라는 추측이 어렵지 않다.

그렇다면 한라산과 지리산은 도대체 어디부터를 산이라고 할 수 있을까? 선행 연구를 검토하면, 한라산에 대한 공간적인 인식을 제주도 전체와 동일시하는 광역적인 시각도 있고, 해발고도 500m 이상 지역, 국립공원 지역범위(대체로 해발 600m 이상)로 보는 시각도 있다.⁴⁾ 이렇게 한라산을 규정하는 영역 기준이 다른 까닭은 한라산을 보는 인식 주

2) 탁한명·김성환·손일, 「지형학적 산지의 분포와 공간적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지리학회지』 48-1, 2013, 2쪽.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국토 면적의 70%가 산지라는 일반적 인식은 필지(임야)로 추산한 산림청의 임학적 산지개념에 근거한 것이다.

3)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의 ‘산’ 정의 기준에 의하면, “보호지역 안에 최소 1,500m의 융기지역, 최소 1만 헥타르의 면적 보유, IUCN의 보호구역 기준1-4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유네스코한국위원회, 『세계유산: 새천년을 향한 도전』, 2010, 138쪽).

4) 정광중, 「한라산과 제주도민의 문화」, 『한국사지리학회지』 16-1, 2006, 32~38쪽.

체의 관점과 이에 따른 대상 설정이 다르기 때문이다. 넓은 범위로, 한라산을 제주도과 동일시하는 시선은 제주사람들의 정서적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고, 지질학적으로도 제주도는 한라산의 화산 활동으로 형성되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 그렇지만 지리학적 범주로는 평지와 해안까지 포함시켜 산으로 정의하는 것은 난센스라고 하겠다. 반면에 좁은 범위로, 해발고도 500m 이상 혹은 600m 이상 지역의 한라산 설정은, 보전관리를 위주로 하는 자연생태적 대상지역으로는 적합할 수가 있겠지만, 중산간지대에서 전개된 경제생활과 역사문화를 배제한 좁은 지역 범위이다. 위의 두 관점에는 문화역사적인 공간범위가 빠져 있으며, 새로운 관점의 산지 기준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그것이 바로 해발 200m 이상을 기준으로 중산간지대를 포함하는 문화역사적 산지 설정 방식이다.⁵⁾

지리산의 문화역사적 공간 영역에 대한 설정 문제도 한라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 현행 지리산 국립공원의 공간범위는 핵심적인 자연생태 보전지역일 수 있겠지만, 지리산지에서 전개된 문화역사적 영역을 포괄하기에는 공간적 범위가 너무 좁은 것이 사실이다. 한국의 산지환경을 고려한 지형학적 산지구분 기준(고도 300m 이상)⁶⁾으로 설정하면 현행 국립공원 범위보다는 훨씬 광역적인 공간범위가 되지만(그림 1), 지형학적인 관점이라서 지리산의 문화역사적인 지역성을 담아내기에는 한계가 있다. 현실적인 한 대안으로서, 산지와 평지를 가르는 해발 200m 이상을 기준으로 지리산의 문화역사적 산지 영역을 설정한다면 지리산지의 생활경제공간을 대체적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고 판단된다. 한라산과 마찬가지로 지리산 역시 중산간지대를 포함한 공간범위로 설정하는 것이 문화역사적인 연구관점으로는 타당하다고 보는 것이다.⁷⁾

5) 이러한 점이 감안되어, 생태계보전과 지역개발의 조화를 지향하는 관점으로 작성된 『제주도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정기보고서』(2013)에서도, 한라산국립공원을 핵심지역의 자연보전지구로 설정하고, 인접지역을 완충지역으로, 중산간지대를 전이지역으로서 지역주민의 지속가능한 개발 공간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6) 탁한명·김성환·손일, 앞의 논문, 7쪽.

7) 지리산과 지리산문화권의 영역은 다르다. 지리산의 문화권역을 설정하는 데는 다양한 문화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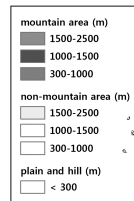
이 글은 기존에 설정된 지리산과 한라산의 공간범위(국립공원·생물권보전지역)를 참고하고 재구성하여, 자연생태적 영역으로서 국립공원 공간범위(대체로 생물권보전지역의 핵심지역),⁸⁾ 문화역사적 영역으로서 중산간지대(대체로 생물권보전지역의 완충 및 전이지역)를 포함하는 공간범위로 설정하고(그림 3·4), 선행 조사연구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비교·활용하여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⁹⁾



그림 1. 지리산의 고도별 산지분포



그림 2. 한라산의 고도별 산지분포



*자료: 탁한명·김성환·손일(2013, 지리산·한라산 부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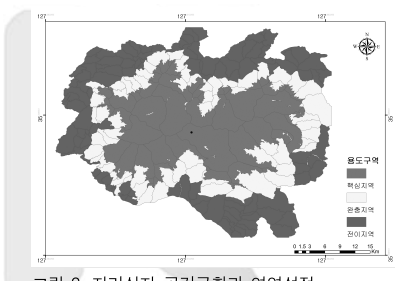


그림 3. 지리산지 공간구획과 영역설정

*자료: 국립공원관리공단, 「지리산국립공원 생물권보전지역」,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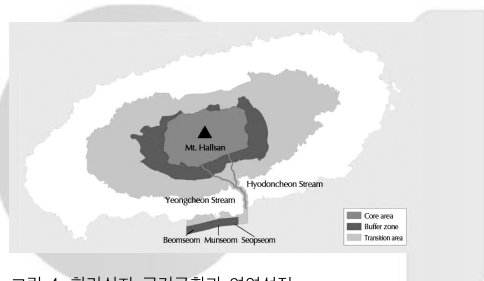


그림 4. 한라산지 공간구획과 영역설정

*자료: 제주 특별자치도, 「제주 생물권보전지역 정기보고서」, 2012.

소의 확산 범위까지를 고려해야 한다. 행정구역으로는 지리산과 접하고 있는 5개 시·군의 인접 권역을 생각할 수 있지만, 광역권역까지 고려한다면 훨씬 공간적인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 문화권역의 설정은 문화요소에 대한 공간적 연구와 결부되어야 가능하다.

- 8) 지리산과 한라산을 포함하여 한국의 주요 명산은 1960년대 이후 대부분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보호, 관리 되고 있다. 지리산도 1967년에 처음으로, 한라산은 계룡산(1968년)에 이어 1970년에 설악산 및 속리산과 함께 지정되었다.
- 9) 제주도(한라산)는 2003년에 생물권보전지역에 등재되었고, 2013년에 정기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지리산도 2013년에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주관하여 생물권보전지역 신청서작성 용역을 시행한 바 있다.

III. 자연적 배경

1. 자연환경과 자원현황

산과 산악문화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분야에서 방법론이 수립될 수 있다. 그 중에서 역사지리적인 접근으로 구성될 수 있는 주제로는, 지리적 조건, 자연환경(지형, 기후 등), 생태환경(동식물), 역사적 배경과 변화, 자원(자연자원, 문화자원, 경관자원), 경제활동, 주민생활사, 민속, 사회집단 및 취락의 형성, 문화요소(산악신앙, 사상, 유산문화, 명산문화, 설화 및 구비전승, 풍수), 행정구역, 관광 등으로 체계화할 수 있겠다. 이러한 구성 내용은 개별 명산뿐만 아니라 복수 명산의 비교문화적인 연구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산은 문화를 담는 자연의 그릇(틀)이라고 할 수 있다. 명산문화는 자연환경, 지리, 역사, 사회, 생활사 등 다양한 요인의 상호관계에 의해 형성된다. 그중 자연환경적 조건은 산지의 문화, 경관자원, 인구 및 취락형성과 발달, 토지 이용 및 관리 등 인문환경적 조건을 규정하는 기본적인 바탕이 된다. 따라서 지리산과 한라산의 지리, 지질, 지형, 토양, 기후, 생태, 산계와 수계 등 자연환경적 조건의 이해에 기초하여 인문환경적 현황을 비교하여 파악하는 작업은, 명산문화의 문화역사적 요소별 고찰에 선행될 필요가 있다. 지리산과 한라산의 기본적인 자연환경과 자원현황을 비교 제시하면 <표 1>과 같다.

구분	지리산	한라산	비고
높이	1915.4m	1947.2m	국립공원 범위
면적	483.022km ²	153.332km ²	
지질·지형	편마암복합체의 변성암류, 화성암류, 제4기층, 嶺南地塊의 침식·풍화지형	현무암 및 조면암질 용암류의 화산지형. 楕狀火山體	
하천 발달	양호	미약	
토양(특성)	부식질 적황색 토양(비옥)	화산회토(척박, 透水性 높음)	
기후	대륙성 습윤기후	아열대 습윤(600m 이하) 한랭 습윤(600m 이상)	

구분		지리산	한라산	비고
기온		12~14°C	5.3~10.9°C	연평균
강수량		1,200~1,600mm	1,384mm(600m 이하) 2,968~4,746mm(600m 이상)	연평균
식생		아열대성 온대우림 및 온대활엽수림	난대 상록활엽수림	식물지리학적 지역 구분
자 원	경관자원	112건 (산봉우리 25, 기암 14, 계곡 26, 폭포 18, 소·담 17, 평전 2, 차·재 10)	44건 (산봉우리 16, 기암 7, 계곡 7, 폭포 1, 동굴 7, 고원 6)	국립공원범위
	동식물 자원	6,977종 (식물 1, 522종, 동물 4, 794종, 기타 661)	2,003종 (식물 1,702종, 동물 112종, 기타 179종)	
	문화자원	79건 (국보 7, 보물 31, 사적1, 명승 2, 천연기념물 9, 시도유형문화재 20, 시도기념물 2, 문화재 자료 7)	15건 (명승 4, 천연기념물 5, 시도유형문화재 3, 시도기념물 2, 등 록문화재 1)	

표 1. 지리산과 한라산의 자연환경과 자원현황 비교

* 자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공원기본통계」, 201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생물권보전지역 정기보고서」, 2012; 국립공원관리공단, 「지리산국립공원 생물권보전지역」, 2013

지리적 조건을 보면, 산 높이는 지리산(1915.4m)과 한라산(1947.2m)이 큰 차이가 없지만, 면적(국립공원)은 지리산(483.022km²)이 한라산(153.332km²)보다 약 3.2배가 크다.¹⁰⁾ 고도는 취락발달과 토지 이용, 식생의 수직분포 등과 직접적으로 관계되고, 면적은 경관자원관리 및 생물서식지와 긴밀한 연관이 있다.

지질·지형적 특색과 토양조건을 살펴보자. 지질·지형 및 토양 조건은 농업 발달 및 취락 분포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지리산은 편마암 복합체의 변성암류, 화성암류로 구성된 침식·풍화 지형이기에 부식질 토양으로 비옥도가 높다.¹¹⁾ 이에 비해 한라산은 火山灰土로서 땅이 척

10) 산지로서 지정된 16개 국립공원 중에서 지리산의 면적이 가장 넓고, 한라산은 9번째 면적 규모를 차지한다.

11) 국립공원관리공단, 「지리산국립공원 생물권보전지역」, 2013.

박하고, 透水性이 높아 하천 발달이 빈약하여 乾川을 이룬다.¹²⁾

기후 조건을 보면, 지리산이 대륙성 습윤기후이고, 한라산은 600m 기준으로 저지의 아열대 습윤기후와 고지의 한랭 습윤기후로 나뉜다.¹³⁾ 이에 따라 연평균 강수량은 지리산이 1,200~1,600mm인데 비하여, 한라산지는 평균 1,384mm로 특히 600m 이상은 2,968~4,746mm로 다우지역을 이룬다. 연평균 기온은 지리산지가 12~14℃, 한라산지가 5.3~10.9℃의 범위에 이른다. 한라산지에 식물종 다양성이 매우 풍부한 것은 이러한 기후적 조건에 연유한 것이다.

식생과 생태지역 현황은 다음과 같다. 식생은 기후와 긴밀한 연관관계가 있으며, 지리산이 아열대성 온대우림 및 온대 활엽수림인데 비하여, 한라산은 난대 상록활엽수림이다. 생태지역을 보면(그림 5·6), 한라산지는 고도에 따라 동·서·남쪽 들레에 생태1등급, 생태2등급 구역이 面的으로 분포되어 있고, 북쪽의 제주 시가지 쪽으로는 생태2등급 구역이다. 지리산지는 부분적으로 생태1등급 지역이 국립공원과 접해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생태2등급 지역이 별도관리지역 외곽으로 넓게 분포한 편이다. 국립공원은 별도지역으로 관리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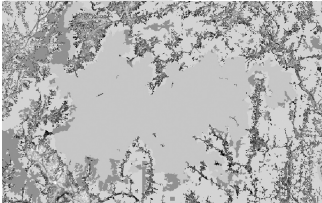


그림 5. 지리산지의 생태자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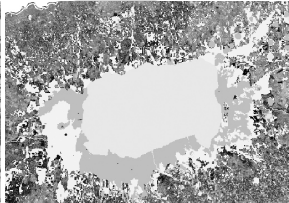


그림 6. 한라산지의 생태자연도

* 자료: 환경공간정보서비스(egis.me.go.kr)

다음으로는 두 산의 자원 현황(2013년)을 경관자원, 동식물자원, 문

1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생물권보전지역 정기보고서」, 2012.

13) 제주특별자치도, 위의 보고서.

화자원으로 분류하여 대비해보자.¹⁴⁾

경관자원은 지리산이 112건으로 한라산의 44건에 비해 약 2.5배 가까이 많은데, 그중에서도 계곡, 폭포, 소·담 등의 수경관 자원은 지리산이 61건으로 한라산의 8건보다 압도적으로 차이가 난다. 고개는 지리산이 10건이 있으나 한라산은 없으며, 반면 동굴은 한라산만 7건이 있다. 이러한 경관자원의 분포 특성은 두 산이 지닌 지질·지형적인 조건이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경관 매력도 지표라고 할 수 있는 ‘국립공원 100경’에, 지리산이 16경¹⁵⁾으로 가장 많고, 한라산이 7경¹⁶⁾으로 설악산 다음이다.

동식물자원은 지리산이 한라산보다 약 3.5배가 많으며 특히 동물종은 4,974종(지리산)과 112종(한라산)으로 큰 차이를 나타낸다. 두 산의 서식지 면적과 산지 연계성이 달라서 생긴 차이로 판단된다. 그런데 식물종은 한라산이 지리산 보다 180종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났는데, 단위면적당으로 환산할 때 한라산의 식물종이 지리산보다 월등하게 풍부함을 알 수 있다. 지리산지에 비해 한라산지의 온난한 기후 조건과 풍부한 강수량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문화자원은 자연환경과도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서, 지리산이 79건으로 한라산의 15건보다 훨씬 많은 분포수를 보인다. 한라산지에 대해 지리산지 문화경관의 오랜 역사적 배경이 잘 대비되어 드러난다. 하지만 명승의 지정 현황을 보면 한라산은 4건(사라오름, 영실기암과 오백나한, 한라산 백록담, 한라산 선작지왓)으로 지리산의 2건(지리산 화엄사 일원, 지리산 한신계곡 일원)보다 많다. 명승의 성격을 분석해보면, 한라산은 산지형 명승이고 지리산은 계곡형 명승이라는 점도 두 산의

14)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공원기본통계」, 2013.

15) 뱀사골 계곡, 노고단 운해, 바래봉철쭉, 지리산일출, 칠선계곡, 제석봉에서 바라본 운해, 노고단에서 바라본 천왕봉, 피아골계곡, 다랭이논, 쌍계사 벚꽃길, 지리산과 산수유마을, 화엄사 각황전, 곰이있는 풍경, 화엄사 계곡과 섬진강, 쫓대봉에서 바라본 세석평전, 노고단(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공원기본통계」, 2013).

16) 백록담, 산철쭉군락과 화구벽, 한라산의 구상나무 설경, 영실기암, 한라산의 야생노루, 어승생악에서 바라본 풍경, 물장오리 오름(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공원기본통계」, 2013).

자연지형적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2. 산계와 수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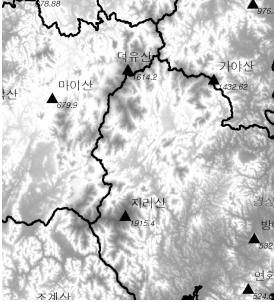


그림 7. 지리산 산계의 연계성

*자료: 국토지리정보원(www.ngii.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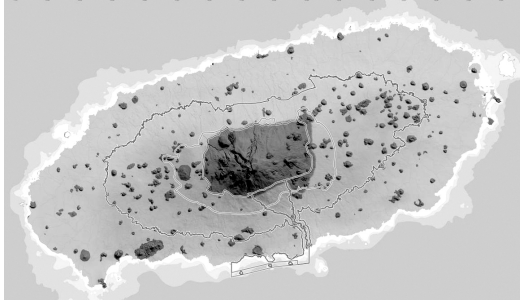


그림 8. 한라산 및 오름의 군집성과 분포

*자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생물권보전지역 정정보고서』, 2012.

지리산과 한라산의 산계와 수계도 지질·지형적 특성의 차이로 인해 매우 상이하게 나타난다. 그 각각은 동식물 생태뿐 만 아니라 문화경관 및 인문환경을 규정하는 배경이 되고, 지리적 분포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

지리산은 백두대간의 종점이자 낙남정맥의 분기점으로서, 연속적이고 연계적인 산줄기 관계가 뚜렷하다. 산줄기 체계에 줄기와 가지의 위계가 있어서 幹枝的 연계성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겠다(그림 7). 상대적으로 한라산은 고립된 섬의 지리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내륙 산줄기와의 연계성이 없지만, 한라산을 중심으로 주위 둘레에 360여개의 群小한 소화산체(오름)들을 가지고 있어, 主從的 군집성을 지닌 山體群으로 이해될 수 있다(그림 8). 따라서 두 산계의 특색은 形態圖像的으로 각각 幹枝的 連繫性和 主從的 群集性으로 대비될 수 있다. 연계성의 속성이 線的인 脈絡이라면, 군집성은 面的인 場團으로 이해된다. 『제주읍지』(18세기 말 이후)에서도 “고을의 산천은 모두 한라산에서 맥을 일으킨다”라고 서술하여 한라산을 중심으로 한 주변 산천의 주종적인 場團 관계가 표현되기도 하였다.¹⁷⁾

한라산 산계의 이러한 특징은 화산지형에서나 가능한 것으로 한반도의 산체에서는 매우 특이한 지형경관적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조

선후기의 고지도인 『해동지도』의 「제주삼현도」(그림 9)에서도 한라산 및 소화산의 군집 모습은 가시적으로 잘 나타나 있다. 더구나 『대동여지도』(그림 10)에서는, 한라산과 주위 오름을 연결하여 연속된 산줄기로 제주의 지형경관을 재현하고 있어서 흥미롭다. 이러한 인식은 조선 후기 육지의 산줄기 인식이 제주도 한라산지의 지형환경에 투영된 결과라고 하겠다.



그림 9. 해동지도(제주삼현도, 부분도)의 한라산과 오름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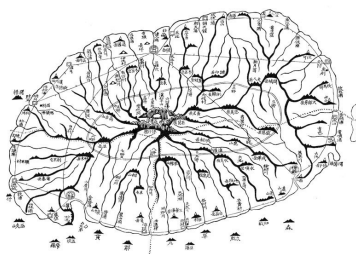


그림 10. 대동여지도(제주도 부분도)에 표현된 산줄기 연계성

지리산지와 한라산지의 수계를 몇 가지 측면에서 비교하면, 하계망의 공간적인 분포 패턴, 河道의 굴곡도, 하천의 특성 및 수량에서도 큰 차이를 보인다. 지리산의 하계망은 동서 방향의 주능선을 기준으로 樹枝狀·放射狀의 공간적 패턴을 나타내며, 크게 동(낙동강)·서(섬진강) 유역권으로 구분되는데, 하도는 曲流度가 크고 수량도 풍부한 편이다(그림 11). 반면 한라산의 하계망은 동서로 횡단하는 분수계를 기준으로 각각 남·북 방향으로 빗살 모양의 平行狀을 드러낸다. 하도는 대부분이 直流하고 물이 없는 乾川이 특징이다(그림 12). 이러한 양 수계의 특징은 두 산의 농경지 및 취락의 형성과 분포, 농업(벼농사 및 밭농사) 및 경작 방식, 생활공간의 영역 등을 기본적으로 규정짓는 요인이 된다.

17) 『濟州邑志』, 大靜, 山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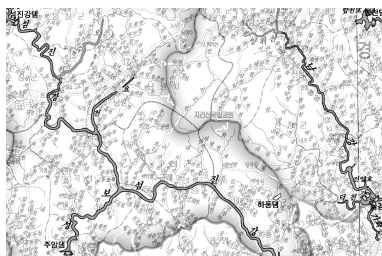


그림 11. 지리산의 하천 수계와 유역권



그림 12. 한라산의 하천 수계

*자료: 한국하천정보시스템(river.kwater.or.kr/garam)

IV. 인문적 배경

1. 토지 이용

지리산과 한라산의 토지 이용은, 지리지 및 옛 문헌을 통한 역사지리적 고찰과 함께, 현황으로서 고도별 분포, 토지피복 상태, 토지소유, 용도지구 등의 데이터로 비교 개관할 수 있다.

지리산지의 오랜 토지 이용 역사는 고대 삼국 및 가야의 유적, 古刹의 입지 등에서도 쉽게 확인된다. 농작물의 재배는 9세기 문헌(『삼국사기』)부터 나타나는데, “홍덕왕대(826~836)에 중국에서 돌아온 사신이 차의 종자를 가져오니 왕이 지리산에 심게 했다”는 기록이 있다.¹⁸⁾ 이후 통일신라, 고려시대를 거치면서 사찰의 대토지소유 및 농경이 지리산 남사면 골짜기와 기슭에서 주로 진행되었다. 조선시대에는 양란 이후 다수의 유민들이 지리산지의 골짜기와 소분지에 정착하여, 거주지는 중산간지대로 확대되었다. 산지의 개간과 관개 기술로 벼농사가 발달하여 조선후기에는 인구와 취락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동시에 화전 농업도 1965년의 화전민 이전까지 지속되었다.

두 산의 토질과 농경(벼농사·밭농사) 조건에 대한 역사지리적인 기

18) 『삼국사기』 권10, 신라본기 제10, 홍덕왕.

록은 옛 문헌과 지리지에도 잘 대비되어 드러난다. 지리산지의 경우, 박장원(1612~1671)의 「유두류산기」에서, “농토는 모두 벼농사에 적당하네”¹⁹⁾라고 읊거나, 정석구(1772~1833)의 「두류산기」에서, “고지대는 火田을 일구고, 언덕이나 평지는 논을 갈며”²⁰⁾라는 표현에서도 단적으로 나타난다. 반면, 한라산지는 『신증동국여지승람』(16세기 중엽)에서 “땅이 척박”²¹⁾하다고 하였고, 『탐라지』(17세기 중엽)에서는 이를 부연하여, “흙 성질이 뜨고 건조하여 밭을 개간하려면 반드시 소나 말을 몰아 밟아야 한다”²²⁾고 설명하였다. 일찍이 김정(1486~1520)이 「제주풍토록」에서 “벼가 극히 적어서 토호들은 육지에서 사다가 먹지만 역부족인 사람들은 밭작물을 먹는다”²³⁾고 기록한 데에서 제주지역에서의 벼농사 사정이 잘 드러난다. 관련하여 물이 부족한 경작조건과 생활공간의 환경이 반영된 제주사람들의 인식으로서, 한라산지의 수자원 사정에 대한 실화적 표현도 참고 할만하다. 고려시대에 송나라의 호종단이라는 술사가 제주의 지맥을 끊어 물이 귀하다는 것이다.²⁴⁾

한라산지와 대비하여 지리산지의 토지 이용 및 역사적 변천에 핵심적으로 볼 사항은 농경지(특히 논)이다. 『세종실록』 지리지에 의하면, 15세기 중반 지리산 접경군현의 농경지는 32,514결에 달했음을 알 수 있다. 이 중에서 논은 과반수로 추산해도 16,257결이었다. 그런데 조선 후기에 이르면, 『여지도서』에서 제시하고 있듯이, 논은 22,068결로서 5,811결이나 많아져, 35% 이상이나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한라산 접경군현에서의 논은 조선초기에 116결, 조선후기에 518결로 402결이 증가하는데 그치고 있다. 이러한 수치는 지리산 접경군현에 비하면, 조선후기 기준으로 논의 규모가 2.3/100, 논의 증가는 6.9/100에 불과한 것이다.

19) 朴長遠, 『久堂集』 「遊頭流山記」, “田土皆宜稻”

20) 丁錫龜, 『虛齋遺稿』 「頭流山記」, “高亢則火耕 阜衍則水耨”

21) 『신증동국여지승람』, 제주목, 풍속.

22) 李元鎮, 『耽羅志』, 風俗.

23) 金淨, 『濟州風土錄』, “稻絕少土豪實陸地而食力不足者食田穀”

24) 현길인, 「고종단(胡宗旦)형 설화에 나타난 제주민의 의식구조」, 『한국문화인류학』 9-1, 1977, 151쪽.

이로써 조선후기에 지리산권역과 한라산권역의 벼농사(논) 규모는 현저한 차이가 난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표 2·3, 그림 13·14). 이것은 인구수 및 인구분포의 역사적 변화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음은 물론이다.

구분	『세종실록』 지리지(1454)		『여지도서』(18C중엽)			증가
	결수	비고	결수	논(결)	밭(결)	결수
남원	12,508	논이 조금 많다	10,060	7,180	2,880	-2,448
구례	1,735	논이 조금 적다	1,523	1,012	511	-212
운봉	1,796	논이 조금 많다	1,387	1,075	312	-409
하동	1,272	논이 2/3가 못된다	4,013	2,300	1,713	2,741
진주	12,730	논이 조금 적다	15,761	8,206	7,555	3,031
함양	2,473	논이 조금 적다	3,918	2,295	1,623	1,445
계	32,514		36,662	22,068	14,594	4,148

표 2. 조선전후기 지리산 접경군현의 농경지 수 비교

*자료: 하동은 『여지도서』 補遺編의 『河東府邑志』에 근거한 것임.

구분	『세종실록』 지리지(1454)			『제주읍지』(18C말 이후)			증가
	결수	논(결)	밭(결)	결수	논(결)	밭(결)	결수
제주	3,977	31	3,946	4,296	305	3,991	320
정의	3,208	0	3,208	3,399	16	3,383	191
대정	2,227	85	2,142	2,425	197	2,228	200
계	9,412	116	9,296	10,120	518	9,602	708

표 3. 조선전후기 한라산 접경군현의 농경지 수 비교

*자료: 『제주읍지』(규장각 想白古 915.149-J389)는 소수점 이하 절사한 수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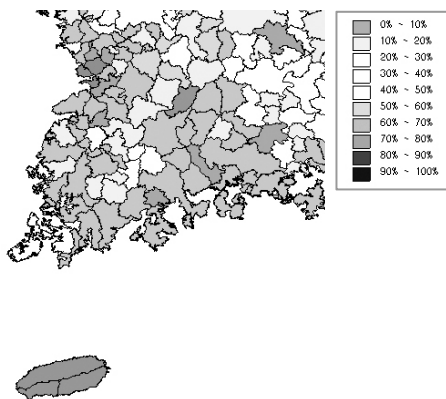


그림 13. 조선초기(『세종실록지리지』) 지리산·한라산 권역의 수전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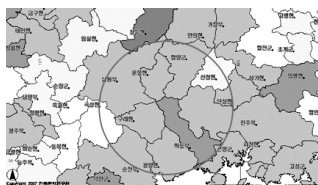


그림 14. 조선전기(위)·조선후기(아래) 지리산권역의 논 비율 변화

*자료: 조선시대 전자문화지도시스템(www.atlaskorea.org) 지도를 편집한 것임.

현재 지리산지의 토지이용과 경제활동은 농업이 위주를 이룬다. 2013년 1월 기준으로, 지리산지 역사문화권역의 농가인구는 22,068명으로 전체 인구의 46%를 차지하며, 농가가구수는 14,486호로 전체 가구수의 65%라는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이 지역에서는 전통적으로 벼농사를 중심으로 하는 농업이 발달하였고, 특용작물로서는 산지의 밭을 이용한 참깨, 들깨, 땅콩 등의 밭농사와 사과, 배, 매실 등의 과수농사를 하고, 임산물로서 산나물, 송이버섯, 약초 및 고로쇠 채취 등으로 생업을 유지한다. 산업과 연계된 주요 지역특산품으로는, 녹차 재배와 꽃감 산업, 매실 농업이 특화하여 발달하였다.

한라산지의 경우, 고도별 토지 이용 분포 현황(표 4)을 통해서도 현재적 조건의 이해뿐만 아니라 예전의 역사지리적 사정을 짐작하여 추론할 수 있다. 자료에 의하면, 한라산의 자연생태적 영역으로 간주되는 600m 이상의 고지에서는 취락지와 농경지가 나타나지 않는다. 고지의 대부분 면적은 자연적 상태의 산림지(89%)이고, 나머지는 초지와 잡목지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문화역사적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중산간

지대에서 취락지는 1.0km²의 적은 규모를 보인다. 지리산지에 비하면 한라산 취락지의 비중(0.2%)은 매우 낮고, 농경지에서는 밭이 32.4km²(5.5%)로 대부분의 면적을 차지하여, 지리산지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논·밭의 비율과 대비된다.

단위 km² (%)

구분	계	취락지	밭	과수원	시설 농경지	초지	산림지	잡목지	시설 용지	기타
중산간지대 (200~600m)	589.0 (100)	1.0 (0.2)	32.4 (5.5)	19.2 (3.3)	0.6 (0.1)	268.4 (45.6)	161.7 (27.4)	85.7 (14.5)	10.0 (1.7)	10.0 (1.7)
600m이상	246.0 (100)					11.4 (4.6)	218.8 (89.0)	14.1 (5.7)		1.7 (0.7)

표 4. 한라산지의 표고별 토지 이용 분포 현황

*자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생물권보전지역 정정보고서」, 2012

지리산과 한라산의 토지피복도 현황(그림 15·16)도 지역적 토지 이용과 분포 상태를 비교·개관하는데 도움이 된다. 지리산권역에는 넓은 면적의 농업지역이 분포되어 있다. 지리산(국립공원 범위)은 대체로 산림지역이며, 농업지역이 넓게 형성된 곳은 남서지역에 해당하는 구례군 산동면·용방면·광의면·마산면·토지면 일대, 북부지역의 남원시 운봉읍·인월면, 남부지역의 하동군 악양면 등이 뚜렷하다. 상대적으로, 한라산은 정상부와 중산간지대에 초지가 발달한 것이 특징이다.²⁵⁾ 백록담의 정상부위는 초지가 형성되어 있고, 주위는 산림이 넓게 형성되어 있다. 중산간지대는 초지와 산림이 혼재된 경관모자이크를 나타낸다. 농경지는 중산간지대의 하부 둘레를 따라서 부분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25) 정상부의 초지는 고산식물대와 관목대로서 중산간의 초원지대와는 구별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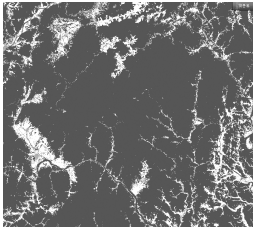


그림 15. 지리산권역 토지피복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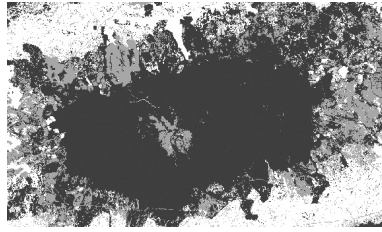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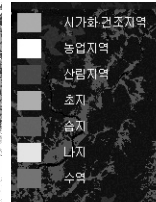


그림 16. 한라산권역 토지피복도



* 자료: 환경공간정보서비스(egis.me.go.kr)

지리산과 한라산의 (국립공원 내) 토지소유 현황(표 5)도 비교해 보면 토지 이용의 역사적 특성이 상대적으로 잘 드러난다. 한라산은 국유지(96.1%)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지리산은 사유지(15.1%)와 사찰지(8.4%)의 비중이 한라산의 사유지(2.9%)나 사찰지(0.1%)에 비해 크게 높다. 지리산지에는 오래전부터 토지점유를 통한 민간인의 생활이 이루어졌고, 다수의 사찰이 입지하여 대토지를 소유하였던 역사적 배경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구분	지리산	한라산
토지 소유	국유지(341.274km ² , 70.7%)	국유지(147.387km ² , 96.1%)
	공유지(27.898km ² , 5.8%)	공유지(1.332km ² , 0.9%)
	사유지(73.066km ² , 15.1%)	사유지(4.471km ² , 2.9%)
	사찰지(40.784km ² , 8.4%)	사찰지(0.142km ² , 0.1%)
용도 지구	자연보존지구(157.211km ² , 32.5%)	자연보존지구(89.060km ² , 58.1%)
	자연환경지구(322.606km ² , 66.8%)	자연환경지구(64.132km ² , 41.8%)
	문화유산지구(2.895km ² , 0.6%)	문화유산지구(0.140km ² , 0.1%)
	마을지구(0.310km ² , 0.1%)	마을지구(0)

표 5. 지리산·한라산 국립공원 내 토지소유 및 용도지구 현황

*자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공원기본통계」, 2013

지리산과 한라산의 용도별 관리 현황은 토지소유 및 이용에 기초하여 비교될 수 있다. 지리산은 자연보존지구(32.5%) 보다는 자연환경지구(66.8%)가 두 배 이상 높으며, 문화유산지구(0.6%)와 마을지구(0.1%)도 포함되어 있다. 상대적으로 한라산은 자연보존지구(58.1%)가 자연환경지

구(41.8%) 보다 면적이 더 넓으며, 지리산에 비해 문화유산지구(0.1%)와 공원마을지구(0)가 차지하는 비중은 현저히 적음을 알 수 있다.

2. 취락과 인구

지리산지와 한라산지의 취락 형성과 인구 분포는 해당 지역의 자연 환경 및 농업생산, 그리고 사회역사적 조건과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다.

지리산을 접경한 조선시대의 읍취락은 6개(진주·하동·구례·남원·운봉·함양)가 있었는데, 현재는 1개 시(남원) 4개 군(함양·구례·산청·하동)으로 재편성되었다. 한라산권역에는 조선시대에 3개 읍취락(제주·정의·대정)이 있었고 현재는 2개시(제주·서귀포)로 구성되어 있다.²⁶⁾

지리산지와 한라산지에 분포하는 인구와 촌락은 규모와 숫자 면에서 큰 차이가 난다. 문화역사적 공간범위로서 중산간지대를 포함하여 보면, 지리산권역에는 47,754명이 거주하고 522개의 자연마을이 있는 반면에, 한라산권역에는 19,878명이 살고 32개의 자연마을만 있다.²⁷⁾ 지리산지에 한라산지와는 달리 수많은 인구와 자연마을이 분포한다는 사실은, 조선후기의 정치사회적 조건과 함께 산지 벼농사 지역의 지속 가능한 인구부양력과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지리산지는 한라산지에 비해 지형적으로 골짜기가 깊고 많으며 하계망이 잘 발달되었다. 충분한 강수량과 토양 조건으로 인해 사계절 내내 하천의 수량도 풍부한 편이다. 산지 안에 小盆地가 여러 분포하

26) 현재 행정구역의 시군별 면적은, 지리산은 경남 산청군(270.731km²)이 가장 크게 차지하고, 전북 남원시(111.482km²), 전남 구례군(100.809km²), 경남 하동군(86.255km²)과 함양군(72.360km²)의 순서를 이룬다. 한라산은 제주시(91.609km²)가 차지하는 북사면의 면적이 서귀포시(61.723km²)가 차지하는 한라산 남사면의 면적에 비해 훨씬 크다.

27)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 정기보고서, (2012)』 및 『지리산국립공원 생물권보전지역』(2013) 집계에 근거한 것이다. 지리산권역은 5개의 시군과 1개의 읍, 16개의 면(주천면, 이백면, 산내면, 인월면, 토지면, 마산면, 광의면, 산동면, 화개면, 악양면, 청암면, 금서면, 삼장면, 시천면, 마천면, 휴천면)이 걸쳐있다. 2013년(1월 1일) 현재 해당 총 인구는 47,754명이며, 가구수는 총 22,401호이다. 자연마을수는 522개에 달한다. 정치영(2006)은 같은 책, 358쪽에서 지리산지(200~800m)에 총 288개의 마을을 집계하였다. 한편, 제주도는 『제주도중산간지역종합조사』(1997) 자료에 의하면, 중산간지역(200~600m)에 32개의 취락이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여 있는 것도 취락의 입지와 직결되는 중요한 지형 조건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자연지형적 배경으로 인해 지리산지에는 고대로부터 토지 이용이 이루어졌고, 특히 조선후기의 사회적 혼란기에는 다수의 민간인들이 유입하여 벼농사를 하면서 마을을 형성하고 지속가능한 삶의 터전을 이루었다. 산 깊은 골짜기 속에 분지가 있으면서, 기후가 따뜻하고 물이 충분하여 벼농사가 가능한 산지환경을 갖춘 지리산은 전래적으로 樂土, 吉地, 勝地, 明堂의 대명사가 될 수 있었다. 지리산이 隱者의 산이고, 避難保身의 은둔지가 가능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지형적 조건이 갖춰졌기 때문이었다. 지리산지에 한국의 대표적인 洞天福地形 이상향인 청학동이 있었던 까닭도 화개동천의 깊은 골짜기 지형 때문에 가능하였던 것이다.

반면 지리산과 대비하여 한라산은 신생대 화산 지형으로서 깊은 골짜기가 없고 골의 숫자도 적으며, 분지가 발달되지 않았다. 지표수도 지질·토양적 조건에 의해 대부분 투수성 건천이라서, 해발고도가 낮은 중산간지대라고 하더라도 특정한 일부 하천 주변을 제외하고는 집단적인 삶의 터전(자연마을)을 이루기는 사실상 어렵다. 같은 이유로 지리산지와 달리 벼농사를 통해 인구부양력과 지속가능성을 갖춘 취락 발달이 힘들고 밭농사의 토지 이용만 가능하였다. 따라서 취락의 분포는 대부분이 용천수가 나는 해안 지역을 따라 발달할 수밖에 없었다. 한라산에는 신선이 머무는 仙境은 있지만, 민간인의 생활터전으로서 이상향은 없었고, 그래서 제주사람들의 유토피어는 海洋形[海島]으로서 이어도 같은 상상의 먼 바다 섬에서 찾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²⁸⁾

조선시대 지리산권역과 한라산권역의 취락 및 인구 발달을 역사지리적으로 개관해보자. 조선전기·후기 관찬지리지의 통계(인구수)를 대비하면, 시간단면적인 이해와 시기적 변천양상의 파악이 가능하다.

지리산지에서 농민 인구가 성장하고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촌락의

28) 강문규는 「한라산과 신선사상」, 『한라산』, 2013, 156~159쪽에서 한라산의 한천을 따라 나타나는 여러 신선사상의 흔적(지명, 경관 등)을 대표적으로 들고, 한라산 속에 이어도의 心想을 일구어놓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는 신선들만 머물 수 있는 곳인 仙界의 유토피어 관념이지, 사람들이 사는 생활터전으로서의 이상향 관념과는 거리가 있다고 하겠다.

구분	지리산	한라산	비고
읍취락(수) 변화	조선시대: 6개 읍치(진주·하동·구례·남원·운봉·함양) 현재: 1개 시(남원) 4개 군(함양·구례·산청·하동)	조선시대: 3개 읍치(제주·정의·대정) 현재: 2개시(제주·서귀포)	산지접경권역
자연마을(수)	522개	32개	문화역사영역
인구 수	47,754명	19,875명	문화역사영역
시군별 면적	전북 남원시(111.482km ²) 전남 구례군(100.809km ²) 경남 산청군(270.731km ²) 하동군(86.255km ²) 함양군(72.360km ²)	제주 제주시(91.609km ²) 서귀포시(61.723km ²)	국립공원범위

표 6. 지리산과 한라산의 인문환경 현황 비교

* 자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공원기분통계」, 201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생물권보전지역 정기보고서」, 2012; 국립공원관리공단, 「지리산국립공원 생물권보전지역」, 2013

발달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조선후기의 일이다.²⁹⁾ 시기적으로 보자면, 대체로 17세기 후반부터 18, 19세기를 걸쳐 지리산지 중산간지대의 인구와 마을이 급증하였다. 상대적으로 한라산지에서는 늦은 시기인 19세기 말부터 목축과 화전농업을 하려는 주민 집단들에 의해 중산간지대에 소규모 촌락들이 성립되었고, 이후 원촌락, 개척촌락, 복구촌락 등이 형성되었다.³⁰⁾

지리산지와 한라산지의 인구 증가에 대한 역사지리적 변천 사실과 그 배경을 살펴보면 흥미로운 사실이 확인된다(표 7·8). 15세기 중엽(『세종실록지리지』)의 조선초기 자료에 의하면, 지리산 접경군현의 인구는 16,718명이고, 한라산 접경군현의 인구는 18,897명이었다. 그런데 18세기 중엽(『여지도서』)의 자료에는, 지리산 접경군현의 인구가 9.1배 가까이 급증하여 152,078명에 이르고 있다. 상대적으로 한라산 접경군현의 인구는 18세기 말(『제주읍지』)에 64,445명으로 3.4배 정도 증가하였다. 지리산 접

29) 정치영, 『지리산지 농업과 촌락 연구』,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6, 311쪽.

30) 제주도·한라산생태문화연구소, 『한라산개설서』, 2006, 58~59쪽.

경군현에서 벌어졌던 인구의 급격한 증가는, 양란 이후의 流民 유입이라는 정치사회적 요인 외에도 농경지 확대, 특히 산지개간 확대 및 수리시설 발달을 통한 논의 증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그림 14 참조). 벼농사로 인해 가능했던 인구부양력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구분	『세종실록지리지』(1454)		『여지도서』(180중엽)		증가(수)	
	호구	인구	호구	인구	호구	인구
남원	1,300	4,912	10,782	36,306	9,482	31,394
구례	137	677	1,869	6,922	1,732	6,245
운봉	139	551	2,024	4,823	1,885	4,272
하동	346	1,108	3,832	17,289	3,486	16,181
진주	2,220	7,522	13,966	65,098	11,746	57,576
함양	428	1,948	4,763	21,640	4,335	19,692
계	4,570	16,718	37,236	152,078	32,666	135,360

표 7. 조선전후기 지리산 접경군현의 호구 및 인구수 비교

*자료: 하동은 『여지도서』 補遺編의 『河東府邑志』에 근거한 것임.

구분	『세종실록지리지』(1454)		『제주읍지』(180말 이후)		증가(수)	
	호구	인구	호구	인구	호구	인구
제주	5,207	8,324	6,707	40,111	1,500	31,787
정의	685	2,073	2,336	15,307	1,651	13,234
대정	1,357	8,500	1,733	9,027	376	527
계	7,249	18,897	10,776	64,445	3,527	45,548

표 8. 조선전후기 한라산 접경군현의 호구 및 인구수 비교

*자료: 『제주읍지』(규장각 想白古 915.149-J389)

촌락의 고도별 분포 현황에서도 두 산지는 서로 비교된다. 지리산지에는 200~400미터에 촌락이 가장 많이 분포하여 해발 400미터 이하에 입지하는 촌락이 전체 촌락숫자의 절반을 상회하며, 400~600미터에도 비교적 다수가 분포한다. 고도 700미터 이상으로 올라가면 촌락의 숫자가 급감하고 800미터 이상은 희소한 분포를 보여 고도한계를 드러낸

다.³¹⁾ 한편, 한라산지에는 해발 200~300미터에 촌락 분포 비율이 가장 높으며(74.5%), 300~400미터에는 급감하다가(20.8%), 400미터 이상은 최소한 분포 비율(4.7%)을 나타내는데, 600미터가 고도한계를 보인다.³²⁾ 요컨대 지리산지의 고도한계가 한라산보다 훨씬 높고 높은 고도까지 많은 촌락이 분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지리산권역에서 농사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오랫동안 집촌을 이루면서 정착했던 자연마을의 공동체주민들이다. 지리산의 산촌마을은 17~18세기 이후 산지 취락의 형성과 발달 과정을 나타낸다. 이들은 대체로 조선후기부터 지리산지에 들어와서 논밭을 개간하여 농업활동을 영위하고 주거하면서 현재의 원주민을 이루었다. 지리산지에 발달한 계단식 논과 벼농사 경관에는 산지환경의 적응과 지속가능한 토지이용의 전통적 기술이 집약되어 있다.³³⁾ 그러나 근대화 과정 및 주민공동체의 고령화로 인하여 전통적 생산방식과 생활문화는 쇠퇴하고 있으며 자연마을은 오래지 않아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다. 근래에는 지리산지가 전원휴양과 귀농지역으로 각광 받으면서 타 지역 외지인들의 전입과 주거가 크게 늘어나서 그 중 일부는 농업 및 관광 숙박업에 종사하고 있다.

요컨대 지리산과 한라산의 촌락과 인구 분포 현황을 비교하면, 지리산지가 한라산지보다 촌락의 숫자가 월등하게 많으며 분포 지역이 넓을 뿐만 아니라 고도 한계도 높다. 그 배경에는 지리산지와 한라산지의 지질·지형적 특성으로 연유된 식수 및 농업용수 조건의 차이에 기인되는 바가 크다.

31) 정치영, 앞의 책, 357쪽.

32) 제주도·한라산생태문화연구소, 『한라산의 인문지리』, 2006, 16쪽.

33) 최원석, 「지리산 문화경관의 세계유산적 가치와 구성」,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8-1, 2012, 51쪽.

V. 요약 및 맺음말

이 글은 지리산과 한라산의 명산문화 비교를 위한 기초연구로서 두 산의 자연적·인문적 배경과 현황을 역사지리적으로 대비하여 고찰한 것이다.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향후의 시사점과 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산(지)의 공간범위는 자연지형적 조건, 인식주체의 관점, 분야별 접근방법에 따라 정의가 다르다. 이 글에서는 해발 200m 이상을 기준으로 지리산과 한라산의 중산간지대를 포함하는 문화역사적 산지 영역을 설정함으로써 생활경제공간을 포함시켰다.

지리산과 한라산의 자연적 특징을 대비하면, 산 높이는 큰 차이가 없지만, 면적은 지리산이 한라산보다 3배 이상 크다. 토양은 지리산지가 부식질로 비옥도가 높지만, 한라산지는 화산회토로서 척박하다. 수경관 자원은 지리산이 한라산보다 압도적으로 많으며, 동물자원 역시 40배 이상의 큰 차이를 보인다. 산계의 특색은 지리산은 幹枝的 連繫性으로 한라산은 主從的 군집성으로 대비될 수 있다. 하계망은 지리산이 樹枝狀·放射狀의 공간적 패턴을 나타내며, 하도는 曲流度가 크고 수량도 풍부하다. 반면 한라산의 하계망은 남·북 방향으로 빗살 모양의 平行狀을 드러내며, 하도는 대부분이 直流하고 물이 없는 건천이 특징이다.

지리산과 한라산의 인문적 특징을 대비하면, 토지소유는 지리산이 한라산에 비해 사유지와 사찰지의 비중이 크게 높다. 상대적으로 한라산은 국유지가 대부분이다. 지리산지는 한라산지보다 촌락의 숫자가 월등하게 많으며, 분포 지역이 넓을 뿐만 아니라 고도 한계도 높다. 역사지리적으로 지리산권역은 한라산권역에 비해 벼농사(논) 규모에서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 상대적으로 한라산의 농경지에서는 밭이 대부분의 면적을 차지했다. 두 산의 취락분포와 토지이용이 다른 배경으로는, 지리산지와 한라산지의 지질·지형적 특성으로 연유된 식수 및 농업용수 조건의 차이에 기인되는 바가 크다.

한라산지와 대비되는 지리산지의 이상과 같은 자연적·인문적 배경 조건은, 향후 지속가능한 산지형 생태지역의 이상적인 개발 모델로서

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지리산지는 자연생태적 여건과 문화역사 및 사회경제적 여건을 통합적으로 갖추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이다. 특히 지리산지에는 산지환경에 오랫동안 적응하면서 벼농사와 기타 농업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다수의 자연마을이 있다. 수백 년의 역사를 지닌 주민공동체의 생활방식과 전통적인 농업기술과 산림지식은, 보전과 개발의 조화를 지향하는 21세기형 산지 생태공동체 개발에 핵심적인 역사적 자산으로서 가치가 크다.

한국의 명산과 명산문화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학계에서 이루어진 시기는 오래되지 않는다. 앞으로 일반적인 연구의 방법론이나 개념 구성의 체계화 논의도 필요하고, 사례 연구나 비교 연구도 요청되는 실정이다. 이 글은 한국의 대표적인 두 명산인 지리산과 한라산의 명산문화적 특성을 비교함에 있어서 기초적인 토대연구로서 역사지리적 배경과 현황을 고찰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앞으로 한국, 더 나아가 동아시아의 명산과 명산문화에 대한 관련 연구자들의 다양한 조명과 학제적 연구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1. 옛 문헌 및 지도

『世宗實錄』地理志, 『慶尙道地理志』, 『新增東國輿地勝覽』, 『輿地圖書』
『濟州邑誌』(규장각 想白古 915.149-J389), 『耽羅志』, 『過瀛州山勢誌』
『濟州風土錄』, 『耽羅聞見錄』, 『南槎日錄』
『破閑集』, 『於于集』, 『久堂集』『遊頭流山記』, 『尼溪集』『遊頭流錄』
『虛齋遺稿』『頭流山記』
『混一疆理歷代國都之圖』, 『大東輿地圖』, 『海東地圖』, 『八道總圖』
『朝鮮總圖』, 『耽羅地圖并識』, 『朝鮮山圖』, 『琢玉亭圖式』
『1872년 지방지도』, 『비변사인방안지도』

2. 논문 및 단행본

강문규, 「한라산과 신선사상」, 『한라산』, 국립제주박물관, 2013
이원진 씬, 김찬흠 외 옮김, 『역주 탐라지』, 푸른역사, 2002
이형상 지음, 이상규·오창명 역주, 『남한박물』, 푸른역사, 2009
정광중, 「한라산과 제주도민의 문화」, 『한국사진지리학회지』 16-1, 2006
정운경 지음, 정민 옮김, 『탐라문견록, 바다 밖의 넓은 세상』, 휴머니스트, 2008
정치영, 『지리산지 농업과 촌락 연구』,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6
제주도·한라산생태문화연구원, 『한라산개설서』 한라산총서 I, 2006
제주도·한라산생태문화연구원, 『한라산의 인문지리』 한라산총서IV, 2006
최원석, 「한국의 명산문화와 조선시대 유학 지식인의 전개」, 『남명학연구』 제26집, 2008
최원석, 「조선시대의 명산과 명산문화」, 『문화역사지리』 21-1, 2009
최원석, 「한국의 산 연구전통에 대한 유형별 고찰」, 『역사민속학』 36, 2011
최원석, 「지리산 문화경관의 세계유산적 가치와 구성」,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8-1, 2012
탁한명·김성환·손일, 「지형학적 산지의 분포와 공간적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지리학회지』 48-1, 2013
현길연, 「고종달(胡宗旦)형 설화에 나타난 제주민의 의식구조」, 『한국문화인

류학』 9-1, 1977

3. 보고서류 및 웹페이지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공원기본통계」, 2013

국립공원관리공단, 「지리산국립공원 생물권보전지역」, 2013

국립제주박물관, 『한라산』, 2013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세계유산: 새천년을 향한 도전』, 2010

제주도, 『제주도중산간지역종합조사』, 199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생물권보전지역 정기보고서」, 2012

국토지리정보원(www.ngii.go.kr)

환경공간정보서비스(egis.me.go.kr)

한국하천정보시스템(river.kwater.or.kr/garam)

조선시대 전자문화지도시스템(www.atlaskorea.org)



Comparative Research on the Histo-geographical Background of Mt. Jiri and Mt. Halla

Choi, Won-suk

This paper studied the geographical backgrounds of Mt. Jiri and Mt. Halla from a histo-geographical perspective.

The spatial range's definition of mountain area is different in several aspects: the regional topography, the local people's viewpoint, and the academic sphere's approach. This paper established the cultural-historical boundary over 200 meters above sea level. This includes the mid-mountain area as the residential life-economic space.

The physical geographical characters of Mt. Jiri and Mt. Halla are as follows. The two mountains are similar in height, but the size of Mt. Jiri is 3 times larger than that of Mt. Halla. Soil conditions are fertile on Mt. Jiri in contrast with the sterile soil on Mt. Halla. The water landscape resources and wild animals of Mt. Jiri are overwhelmingly abundant; much more abundant than that of Mt. Halla. The visible mountain configuration of Mt. Jiri is a trunk-branch connection type; in contrast with Mt. Halla's main-dependence relationship type. The spatial pattern of the stream network on Mt. Jiri shows a radial shape, with a winding

watercourse. In contrast, Mt. Halla's stream network looks like the teeth of a comb appearance, with a straight flow. Mt. Jiri's streams have rich water, but Mt. Halla has many dry stream beds. This condition directly affects the agriculture; rice farming on Mt. Jiri and dry-field farming on Mt. Halla.

The human geographical characteristics between Mt. Jiri and Mt. Halla are as follows. The land ownership ratio of privately owned land and Buddhist temples on Mt. Jiri is higher than that of Mt. Halla. However, government ownership is overwhelmingly high on Mt. Halla compared to Mt. Jiri. On Mt. Jiri, the numbers of settlements are numerous, the distribution region is broad, and the altitude is high in comparison with Mt. Halla. Historically speaking, the rice farming scale has shown a notable difference between Mt. Jiri and Mt. Halla. Mt. Halla is known mostly for dry-field farming in the agriculture area. The primary difference in the settlement distribution and land use is the distinction of water conditions between the two mountains for drinking and irrigation. This is caused by the geological-topographical characters of the two mountains.

Key Words : Mt. Jiri, Mt. Halla, Famous Mountain Culture, Historical geography

■ 이 논문은 2014년 5월 7일 투고되고, 2014년 6월 12일 심사 완료되어 2014년 6월 13일 게재 확정됨.